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화 연구*

진성희** · 성은모*** · 최창욱****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평생진로 발달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진로개발역량의 정의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개발역량의 정의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였고 개발한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및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패널 대상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타당성 조사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총 28명으로 구성되어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문가 패널 대상 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된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719명이었다. 연구결과 총 9개의 세부지표가 개발되었는데 진로설계역량의 세부지표로는 자기이해, 진로 및 직업 탐색, 진로결정능력, 여가활용역량의 세부지표로는 여가필요성 인식, 여가 조절, 여가 몰입, 개척정신의 세부지표로는 차별화 태도, 도전정신, 위험감수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진로개발역량 및 지표는 그동안 유사 다른 선행연구보다는 사회적 변화 및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청소년 학계 및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된 결과이기에 보다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관련 다양한 체험활동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진로개발역량, 청소년 역량,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인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인하대학교 조교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emsung@nypi.re.k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 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광대한 지식의 양의 증대로 인해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화되고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적성을 탐색하고 진학과 취업 등의 진로를 준비하는 등 진로관리능력을 함양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OECD, 2004).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진로준비의 중요성은 국내를 포함한 일본, 미국의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진학 문제’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응답한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 2012).

청소년기가 진로개발역량을 갖춰야하는 중요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육 방향은 대학진학을 위한 진로지도에 머물고 있어 이들이 상급학교에 성공적으로 진학을 하더라도 진로에 미결정과 발달과업에 대한 미성숙의 문제는 남아있게 된다(류재윤, 이유경, 2012). 이러한 현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미래사회한국인의 핵심역량들이 7차 개정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교육을 통하여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광우, 전제철, 허정철, 홍원표, 김문숙, 2009).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청소년기에 가능한 진로지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량중심 진로교육은 진로교육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단편적인 정보의 획득과 일회성 진로결정에 그치지 않으며, 학생의 행동과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지향하며, 진로개발의 다양한 상황에 전이 가능한 능력을 갖도록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역량 및 관련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을 제고하고 있다(임언 외, 2008;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 2007; Folsom & Reardon, 2003; Weinert, 2001).

그러나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을 개발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에 대한 개념을 직업에 초점을 맞춘 협의적 진로개념으로 제한함에 따라 현대 청소년들의 특징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렇게 제한된 진로개발역량 정의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또는 진로개발관련 정책 수립에도 발전적이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개념을 평생진로 발달의 관점에서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역할, 장면, 사건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통합되면서 개인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습관 등을 포함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광의적 진로개발활동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질을 발굴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 역량군 및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그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개념

청소년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개인적, 사회적 자선으로서 잠재력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사회적 자원이다. 청소년 역량의 개념은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유능하고 책임감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의 발달단계별로 필요한 지식, 기술, 자아개념, 동기, 내면적 특질로 이해할 수 있다(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청소년의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밝혀 왔으며 중요 핵심역량 중 하나가 진로개발역량이다.

진로개발활동은 협의적 진로개발과 광의적 진로개발로 구분될 수 있다. 협의적 진로개발활동은 진로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 및 진로 의사결정을 하는 실질적 진로 설계(Career Design)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개발개념을 바탕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으로서 삶의 지향점을 설정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그러한 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지현, 2002; 임언 외, 2008; 류재윤, 이유경, 2012). 광의적 진로개발활동은 개인의 전 생애과정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 계획,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따라서 진로개발역량을 협의적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보느냐 혹은 광의적 진로개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Super(1990)는 자아개념과 진로발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단계를 성장기와 탐색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성장기(4-10세)로 자기(self)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가정과 학교의 주변 인물들과 동일시와 탐색을 통해 자아개념을 발달시켜나간다. 성장기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로 구분이 되고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적이고 호기심을 통해 직업세계를 접하게 된다. 흥미기는 개인의 취향이 우세하고 이는 활동의 목표 및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능력기는 능력이 증시되며 직업의 요구조건을 고려하게 된다. 두 번째 탐색기(15-24세)는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을 통한 역할 수행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잠정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즉, 이 시기에는 진로발달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발달 과업이 된다. 또한 자신의 여러 특성들을 이해하게 되며 점차적으로 현실적 요인을 중요시하게 된다. 탐색기도 결정화, 구체화, 실행기로 분류가 되고 결정화는 지금까지 탐색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진로에 대해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를 고려한다. 구체화는 잠정적 직업에 대한 선호를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로 옮기는 과정이며, 이때 선택된 직업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구체적인 취업 방법, 교육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실행기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과정이다.

청소년의 진로발달단계의 과업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개념은 광의적 진로개발활동으로 정의내리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 단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탐색 및 진로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진로설계 활동과 자신의 인생에 몰입하여 의도되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여가활동,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와 잠재적 가능성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는 성장동력의 원천인 개척정신의 확립이 주요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진로개발역량은 생애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개발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생애역량개발연구인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도 세 가지의 핵심역량 중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의 하위영역으로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를 포함하고 있어 진로개발역량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개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된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조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이 정의를 토대로 하위영역을 진로선택 시 고려되는 개인적 특성(자신의 능력, 흥미 등)에 해당하는 자기이해,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 전망 등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였는가에 대한 진로·직업지식, 자신의 심리적 특성 및 진로·직업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 이상 세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2009). 이러한 구분은 청소년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류재윤과 이유경(2012)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은 다양한 진로개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정도,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의사결정기술이 포함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학생역량 개발 연구에서는 6가지 역량 중 하나로 진로역량을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역량으로 자기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을 정의하였다(김창환 외, 20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10가지 중 하나로 진로개발능력을 제안하였으며 (김경훈 외, 201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직업기초능력 중 “자기개발지향영역”의 하위요소로 진로개발능력을 제안한 바 있다(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진로개발역량이 생애를 걸쳐 필요한 핵심역량이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역량 및 직업기초역량임과 동시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이므로 청소년 역량에 적합한 역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 정리

연 구	핵심역량	하위역량
DeSeCo (OECD, 2002)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생애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임언 외 (2008)	진로개발역량	자기이해와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진로계획 및 관리, 학업성취 및 평생학습
최인재 외 (2009)	진로개발역량	자기이해, 진로·직업지식, 합리적 의사결정
류재윤과 이유경(2012)	진로개발역량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와 탐색, 의사결정기술
학생역량 (김창환 외, 2013)	진로역량	자기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진로준비행동역량
미래사회대비핵심역량 (이근호 외, 2012)	진로개발역량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설계
직업기초능력 (주인중 외, 2010)	진로개발능력	직업윤리, 진로설계 및 실천, 변화대응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협의적 진로개발활동에 중점을 두어 진로설계 역량적 측면에서 다루어왔다. 한편 광의적인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연구는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을 통한 제한된 방법과 각종 검사 등을 통해 교실 내 활동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고하면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진로교육 지원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최인재 외, 2009). 이러한 의견은 국가 정책에도 반영되어, 2013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다양한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진로교육이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및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가와 진로설계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Kraus(1971)는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집단 소속감을 발전시키며 사회기술(social skills)과 미래의 직업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채준안, 전영숙과 이범석(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에 여가는 운동부족 보충, 인관관계 개선, 교육 기회의 계속적 제공, 창의력 신장, 심리적 갈등 해소, 정서적 안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진로를 탐색하는 내적 동기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희정(2003)은 여가활

동이 직업을 탐색하는 내적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업에 대한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여가 소외, 여가 불균형, 여가 권태 현상과 함께 긍정적이고 원활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여가활용능력 신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Witt & Ellis, 1985). 즉,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량이 진로를 통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척정신과 진로개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유사개념인 기업가정신이 진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기업가정신의 하위 구성요소로는 혁신성, 위험감수, 진취성을 드는데 이러한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의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영미, 2013). 또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한 주인중 외(2010)의 연구에서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으로 변화대응역량을 제안한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진로를 개발하는데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등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려는 정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광의적 진로개발활동으로 정의함에 따라 협의적 진로개발역량에 해당하는 진로설계역량과 함께 여가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인생에 몰입하고 정형화되고 의도되지 않은 경험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는 여가활용(Leisure Use)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진로는 개발하는 동시에 개척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며 위험을 기회로 인지하는 적극적 삶의 자세인 개척정신(Pioneer spirit) 역시 광의적 진로 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실질적 진로 설계활동을 도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으로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타당화는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과 진성희(2015)의 연구에서 수행하였다.

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개념 및 구성체계

1) 진로설계 세부지표

진로설계란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김봉환 외, 2010).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진로설계의 세부지표로 자기이해, 진로 및 직업탐색, 진로결정을 설정하였다.

자기이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2006; Crites, 1978). 특히 Crites(1978)은 그의 진로성숙도 검사 지표(Career Maturity Inventory: CMI)에서 자기이해(Self-Appraisal)의 개념으로 측정하였으며 김봉환 외(2006)는 진로 발달의 개념에서 이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탐색과 자신이 둘러싸인 환경 즉, 가정환경, 주변의 친구관계 등을 바탕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기이해는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에서부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적·외적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진로 및 직업탐색이란 진로·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Sundre, 1998; Super & Overstreet, 1960). 이는 진로성숙을 측정하는 CMI 및 CDI(Career Development Inventory, Sundre, 1998), CVMT(Cognitive Vocational Maturity Test, Super & Overstreet, 1960)에서 직업의 지식(knowing about jobs), 진로 정보 획득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대학의 관련 학과, 학원, 자격증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이며 최근 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선행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결정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준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Super & Overstreet, 1960). 진로 결정 역시 CMI 와 CVMT에서 합리적 직업선택(goal selection)의 개념을 측정한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 탐색과 수집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진로 과정을 살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여가활용 세부지표

여가활용은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Witt & Ellis, 1987). 그리고 여가활용의 세부지표로 여가 필요성 인식, 여가 자신감, 여가조절, 여가몰입을 설정하였다.

여가필요성 인식이란 여가경험을 통해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서동균, 2007; Witt & Ellis, 1987). 이는 청소년들이 과제나 의무에서 벗어난 여가시간에 자기탐색, 피로 회복, 취미생활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평소에 본인이 필요로 했던 요구가 만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 자신감은 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의미한다. 여가활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성공을 예상하며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자신감을 가질 경우 여가에서의 목적추구에 보다 자유로우며 적극적일 수 있다(서동균, 2007). 따라서 여가자신감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여가행동에 임하는가 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여가 조절은 여가활동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그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실천적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서동균, 2007; Witt & Ellis, 1987). 즉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여가시간을 조절하고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등의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가몰입은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서동균, 2007; Csikszentmihalyi, 1997). 이는 여가 활동을 하는 동안 청소년은 그 속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가활동에 온전히 몰입된 상태를 의미한다.

3) 개척정신 세부지표

개척정신은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을 의미한다(김경훈 외, 2012).

개척정신의 세부지표로 차별화 태도, 도전정신, 위험감수를 설정하였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차별화 태도란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태도를 말한다. 즉 주변에서 보던 사물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른 기준 또는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을 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도전정신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도로 정의 하였다. 이는 본인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 했던 상황, 기술,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수행하고 경험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위험감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실패를 학습으로 인식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다. 즉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지 할 수 있다는 기회·가능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실패경험에 머무르면서 자기비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Covin & Slevin, 1986). 진로개발역량의 각 하위역량에 대한 개념 및 세부지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 정의 및 구성체계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Super, 1957; 김봉환, 2010)	진로설계(Career design)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미래 비전에 따른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김봉환, 2010)	자기이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소질,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적 특징을 이해하는 능력(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진로 및 직업 탐색: 진로·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 (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Sundre, 1998; Super & Overstreet, 1960)
		진로결정능력: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준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여러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능력 (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Super & Overstreet, 1960)
	여가활용(Leisure use) 진정한 의미의 여가를 즐기고 여가경험을 통해 최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Witt & Ellis, 1987)	여가필요성 인식: 자신의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가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서동균, 2007; Witt & Ellis, 1987)
		여가 자신감: 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서동균, 2007)
		여가 조절: 여가활동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실천적 능력(서동균, 2007; Witt & Ellis, 1987)
	개척정신(Pioneer spirit)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여 새로운 가능성으로 인지하며, 이를 관리, 조직, 개발시키려는 태도와 능력(김경훈 외, 2012; 영국 EFU)	여가 몰입: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능력(서동균, 2007; Csikszentmihalyi, 1997)
		차별화 태도: 사물이나 현상을 다르게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려는 태도(Covin & Slevin, 1986)
		도전정신: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도(Covin & Slevin, 1986) 위험감수: 불확실성을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실패를 학습으로 인식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Covin & Slevin, 1986)

III. 연구방법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진로개발역량지수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과 세부지표의 구성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 및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전문가 패널 대상의 타당성 조사

1) 전문가 패널

이 연구에서는 총 2회에 걸친 전문가 패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패널 타당성 조사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개념과 구성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안정적 응답과 합의를 반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2~3차례에 걸쳐 반복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전문가 패널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관련 전문가는 총 28명이었다. 전문가 대상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선정기준은 청소년분야 전문직에 10년 이상 경력과 연구업적, 현장경험 등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학과 소속의 대학교수 11명, 연구소 소속 연구자 6명, 청소년 문화센터장 및 민간 청소년 활동 분야 관련자 9명, 청소년 정책관련 공무원 2명 등 총 28명이다.

2) 질문지 개발

1차 질문지는 선행문헌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소년 진로개발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3개의 하위역량과 9개의 세부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개발되었다. 폐쇄형 질문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세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다. 2차 질문지는 1차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피드백 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Landeta & Barrutia, 2011). 2차 질문지에는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3개의 하위역량과 9개의 세부지표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전문

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시 한 번 3개의 하위역량과 9개의 세부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과 세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역량모델링 방법을 적용하여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가 28명을 패널로 하여 4주에 걸쳐 2차의 전문가 패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패널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유선으로 연구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전자우편으로 조사지를 보내어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1차 전문가 패널 타당성 조사 설문지를 배포한 후 1주일 기한을 두고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분석 후 분석 결과에 따른 2차 조사 설문지를 개발 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하위역량 및 세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적 통계치를 분석하였다. 통계치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각 하위역량 및 세부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2. 청소년대상의 타당성 조사

1) 연구대상

전문가 패널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중·고등학생 719명 (남 328명, 여 391명)으로 연구대상은 5개 중학교와 5개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 중 표집하였다. 지역별 연구대상참여현황은 서울 지역의 중학생 128명 (남 76명, 여 52명)과 고등학생 172명 (남 52명, 여 120명), 인천지역 중학생 159명 (남 88명, 여 71명)과 고등학생 148명 (남 53명, 여 95명), 경기 지역 중학생 112명 (남 59명, 여 53명)이었다.

2) 설문조사 문항 개발

선행문헌분석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지표 9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지표의 개념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문항으로써 하나의 문항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문항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육공학 박사 3인과 청소년학 박사 1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설문문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지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하위역량	지표	설문문항	a
진로설계 (Career design)	자기이해	나는 나의 직업적 소질 및 적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친구들과 과 부모님도 동의하고 공감한다(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810
	진로 및 직업 탐색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 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잘 안다 (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Sundre, 1998; Super & Overstreet, 1960).	
	진로결정	나는 미래 진로 목표가 세워져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극복하고 달성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06; Crites, 1978; Super & Overstreet, 1960).	
여가활용 (Leisure use)	여가필요성 인식	나는 학교 등 일과시간에서 벗어난 여가 시간을 즐기며 이를 통해 재충전하며 내 요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서동균, 2007; Witt & Ellis, 1987 응용).	.710
	여가 조절	나는 여가시간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시간을 조절 할 수 있다(서동균, 2007; Witt & Ellis, 1987 응용).	
	여가 몰입	나는 여가시간을 보낼 때 다른 걱정을 잊고 여가 생활 자체에 몰입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느낀다(서동균, 2007; Csikszentmihalyi, 1997 응용).	
개척정신 (Pioneer spirit)	차별화태도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한다 (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732
	도전정신	나는 새로운 일을 접할 때 흥미를 갖으며 적극적으로 도전하 고 수행한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위험감수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한 경험을 좋은 학습 기회 로 삼는다(Covin & Slevin, 1986; Miller, 1983).	

3) 자료 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타당화 검증은 문항에 대한 적절성을 통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써, 청소년이 응답한 문항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에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문항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항분석으로 변별된 측정문항을 바탕으로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당화 자료를 기반으로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종 도출된 세부지표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은 9개의 세부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고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은 3개의 하위역량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IV. 연구결과

1. 전문가 패널 대상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성 조사 결과

1차 전문가 패널 대상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성 조사 결과,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의 하위역량에 대한 적절성 평가는 5점 만점 중 평균 4.53 (표준편차=0.62)로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개의 세부지표에 대한 적절성 평가 또한 5점 만점 중 평균 4.37 (표준편차=0.86)로 상당 수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가 자신감'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해 적절성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표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가 자신감 지표를 제거한 후,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의 적절성 평균점수는 4.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조사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보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전문가 패널 대상 타당성 조사 결과

하위역량 - 지표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진로설계	4.57	0.81	4.84	0.37
- 자기이해	4.81	0.40	4.96	0.20
- 진로 및 직업 탐색	4.67	0.48	4.92	0.28
- 진로결정	4.48	0.81	4.80	0.50
여가활용	4.52	0.68	4.52	0.65
- 여가필요성 인식	4.19	1.03	4.44	0.65
- 여가 자신감	3.67	0.97	-	-
- 여가 조절	4.33	0.91	4.36	0.91
- 여가 몰입	4.10	0.83	4.16	0.90
개척정신	4.24	0.77	4.24	0.83
- 차별화태도	4.00	1.12	4.08	0.91
- 도전정신	4.50	0.51	4.56	0.71
- 위험감수	4.15	0.93	4.12	1.09

2. 청소년 대상 진로개발역량지수 타당성 조사 결과

1) 진로개발역량 세부지표의 문항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의 문항분석을 위해 측정문항의 정규분포 가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다음으로 타당화 측정문항간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규분포 가정은 왜도와 첨도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의 기준(Curran, West & Finch, 1996)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신뢰도 계수는 일반적으로 0.7이상이면 측정문항간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문항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진로개발역량지수의 문항분석 결과(N=719)

지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신뢰계수
진로설계	자기이해	3.47	0.97	-0.17	-0.43	.962
	진로 및 직업 탐색	3.35	0.97	-0.09	-0.24	.962
	진로결정	3.32	0.95	-0.12	-0.19	.962
여가활용	여가필요성 인식	3.69	0.87	-0.29	-0.02	.962
	여가 조절	3.39	0.89	-0.06	-0.16	.962
	여가 몰입	3.78	0.90	-0.34	-0.31	.962
개척정신	차별화태도	3.54	0.92	-0.01	-0.54	.962
	도전정신	3.63	0.84	-0.17	0.02	.962
	위험감수	3.37	0.89	-0.01	-0.09	.962
전체		3.50	0.91	-	-	.962

표 5에 의하면,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타당화 전체 평균은 3.50(표준편차=0.91)으로 나타났다. 최고평균이 평균 3.78(표준편차=0.90)이었고, 최저 평균은 3.32(표준편차=0.95)로 나타났다. 왜도 값은 -0.29~-0.01의 범위에 있었으며, 첨도 값은 -0.54~0.02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왜도 2이하, 첨도 7이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개발역량지수에 대한 문항이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진로개발역량의 세부지표의 타당화 문항 간 내적일치도 Cronhach's α =0.962로 나타났다. 이는 0.7이상이면 보편적으로 문항의 신뢰도가 양호하다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진로개발역량의 지표에 대한 타당화 문항이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진로개발역량의 지표에 대한 타당화 문항의 문항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의 기준을 충족시킴으로써 9개의 모든 문항이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2) 진로개발역량 지표의 상관분석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지표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진로개발역량 지표간 상관계수 $r=.262\sim.577$ 로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지표간 상관관계가 보통 수준에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

진로개발역량의 지표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하위역량	지표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1	2	3	4	5	6	7	8	9
진로설계	1)자기이해	-	.577**	.556**	.262**	.299**	.273**	.274**	.375**	.363**
	2)진로 및 직업 탐색		-	.626**	.262**	.338**	.279**	.314**	.352**	.386**
	3)진로결정			-	.314**	.353**	.268**	.329**	.375**	.398**
여가활용	4)여가필요성 인식				-	.455**	.518**	.340**	.427**	.307**
	5)여가 조절					-	.377**	.305**	.317**	.376**
	6)여가 몰입						-	.299**	.359**	.278**
개척정신	7)차별화태도							-	.545**	.394**
	8)도전정신								-	.500**
	9)위협감수									-

** : $p < .01$

3) 진로개발역량 지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청소년 진로개발 하위역량 및 세부지표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각 지표 및 하위역량의 표준화 계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준화 계수 $\beta = .620 \sim .798$ 위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역량과 지표들이 .6이상의 중간수준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7

진로개발역량지수의 타당화 모형 분석

하위역량	지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하위역량	진로설계	1.000	.692***
	여가활용	.898	.700***
	개척정신	1.000	.798***
지표	자기이해	1.000	.721***
	진로 및 직업 탐색	1.098	.791***
	진로결정	1.074	.787***
	여가필요성 인식	1.000	.747***
	여가 조절	.833	.620***
	여가 몰입	.922	.657***
	차별화태도	1.000	.660***
	도전정신	1.059	.783***
	위험감수	.927	.649***

***: $p < .001$

이와 같은 진로개발 하위역량과 세부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기반으로 청소년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체계 또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2차에 걸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과 지표간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진로개발 하위역량과 지표 타당화 모형의 적합도

모형적합지수	χ^2 (CMIN)	CFI	NFI	TLI	RMSEA
1차	67.315 (df=24, $p < .05$)	0.979	0.968	0.961	0.05
2차	51.508 (df=24, $p < .05$)	0.972	0.949	0.957	0.05
수용기준		>.90	>.90	>.90	<.08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CMIN)를 비롯하여 모형을 설명하는 적합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CFI, NFI, TLI, RMSEA 등의 지수를 활용하였다(Hu & Bentler, 1998).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1-2차 모두 χ^2 값은 기각되었으나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NFI, TLI, RMSEA가 적합지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모형적합도 지수를 고려했을 때,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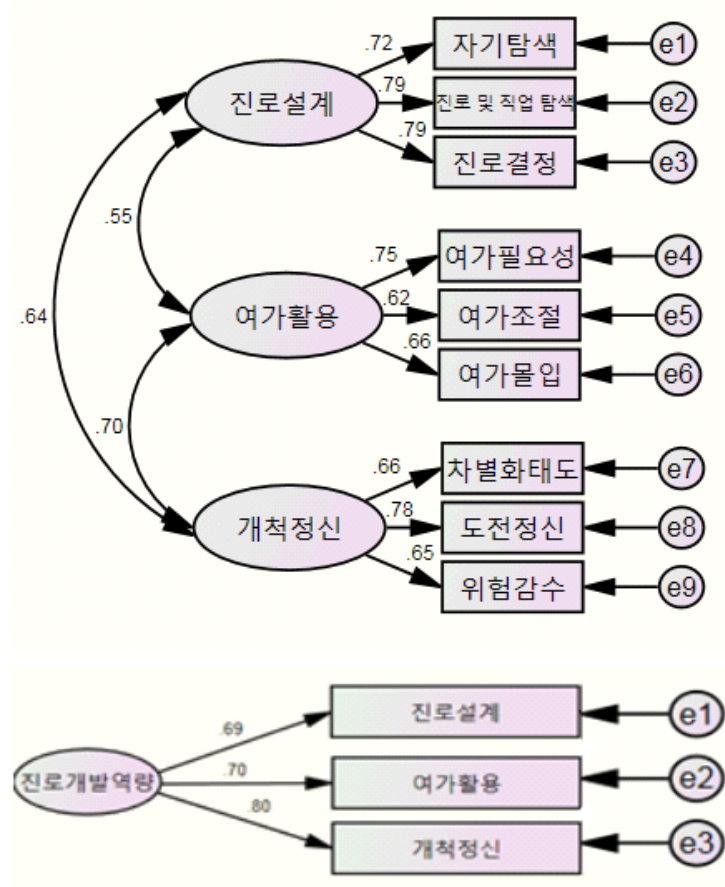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된 구조모형과 표준화된 요인계수

V. 논의 및 결론

진로개발역량은 ‘일생에 걸쳐 한 개인의 생애 역할, 경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이라는 정의와 함께, 진로설계, 여가활용, 그리고 개척정신 등의 하위역량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장기간의 경제침체로 인한 청년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의 적성과 일치하지 않는 학습과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부적응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진성희, 성은모, 2012). 청소년기의 진로개발에 대한 역량 증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개발을 진로설계에 초점을 둔 협의적 관점에서 보았으나 (류재윤, 이유경, 2012; 임언 외, 2008),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역할, 경험,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고 인생의 경험의 폭을 넓혀가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으로 접근하였다는 독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하위역량의 구성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설계에 초점을 두었기에 자기이해, 직업이해, 의사결정의 세 가지 하위역량으로 대부분 구성하였다(류재윤, 이유경, 2012; 이근호 외, 2012; 최인재 외, 2009).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을 진로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보다 생애의 넓은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가활용 역량과, 기존에 제시된 진로와 직업의 관점을 벗어나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와 직업을 찾아 도전할 수 있는 개척정신역량을 강조한 진로개발역량은 개념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수준과 미래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개발의도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지표가 개발되었고 전문가 패널 대상 및 중·고등학생 대상 타당화 조사결과 총 9개의 세부 지표가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진로개발역량 및 지표는 그동안 유사 다른 선행연구보다는 사회적 변화 및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독특성이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학계 및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출되었기에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들

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이에 기반하여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의는 하지만 현재 교육 및 사회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관련 유관기관 및 정책을 수립하는 관련부서에서는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진로개발역량 및 지표는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는데 의미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리라 판단된다. 특히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 및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자유학기제 도입 및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실시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교육부, 2013).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개발역량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을 및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타당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진로개발역량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 검사와 같은 다른 검사간 공인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국민참여민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 <http://www.moe.go.kr/web/222/ko/board/view.do?bbsId=30&boardSeq=44482>에서 2015년 3월 19일 인출.
- 김경훈, 강오한, 김영식, 김윤영, 서인순, 안성진 외 (2012).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기반의 정보 교육 정책 방향 탐색**.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봉환, 이재경, 유현실, 황매향 (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창환, 엄문영, 김기현, 김종민, 박종효, 박현정 외 (2013).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II): 학생역량지수 개발 연구**(연구보고 RR2013-2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노경란, 고재성, 김선호, 김한준, 정명진, 정시원 외 (2008). **직업진로지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류재운, 이윤희 (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 청소년학회지**, 9(4), 99-116.
- 서동균 (2007). **대학생의 여가스포츠에 대한 의사결정균형과 여가기능, 여가몰입, 여가 유능감 관계의 구조모형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서희정 (2003). **학교 내 여가활동이 학교생활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3).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연구보고 13-R5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최창욱, 김혜경, 오석영, 진성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구성체제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2), 117-144.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송민경 (2012).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I: 진로준비**.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영미 (2013).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명희, 서희정 (2009).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평생 진로개발역량의 탐색. **문화콘텐츠 연구**, 14, 1-31.

- 이광우, 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 (2009). **미래 한국인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 박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미래 사회 대비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연구보고 RRC 2012-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지연, 윤형한, 김나라 (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현 (2002). 역량 중심의 대학생 진로개발전략 모색. **상담학연구**, 3(2), 419-438.
- 임언,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명희, 정연순, 장석민 (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 교육 운영 모델 구축**.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미나, 임영식 (2013).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26(4), 65-84.
- 진성희, 성은모 (2012). 고등교육에서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탐색 자기 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1(1), 1-18.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준안, 전영숙, 이범석 (2007). 저소득층 청소년의 여가인식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4(2), 251-278.
- 최인재, 김봉환, 황매향, 허은영, 조지혜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연구보고 09-R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매향, 손만익, 강혜영 (2007). 대학생 대상 진로탐색 교과목 운영의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71-91.
- Covin, J. G., & Slevin, D. P. (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 626-639.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CA: CTB/McGraw-Hill.
- Csikszentmihalyi, M. (1997). Flow and education. *NAMTA journal*, 22(2), 2-3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olsom, B., & Reardon, R. (2003). College career courses: Design and accountability.

-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4), 421-450.
- Hu, L.,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4), 424-453.
- Kraus, R. (1971).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Landeta, J., & Barrutia, J. (2011). People consultation to construct the future: A delphi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casting*, 27(1), 134-151.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OECD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OECD (2004). *Carre Guidance and Public Policy*. OECD.
- Rowe, G., & Wright, G. (2001). Expert opinions in forecasting: The role of the Delphi technique. In J. Armstrong (Ed.), *Principles of forecasting* (pp. 125-144). Boston: Kluwer Academic.
- Sundre, D. L. (1998).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In J. C. Impara, & B. S. Plake (Eds.), *The Thirteenth Mental Measurements Yearbook*.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uper, D. E., & Overstreet, P. L. (1960). *The vocational maturity of ninth grade boy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Weinert, F. E. (2001). Concept of Competence: A conceptual clarification. In D. S. & Salganik, L. H. (Eds.),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Hogrefe & Huber Publishers.
- Witt, P. A., & Ellis, G. D. (1985). Development of a short form to assess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3), 225-233.
- Witt, P. A., & Ellis, G. D. (1987). *Leisure diagnostic battery: Conceptualization, development, reliability, validity, and procedure for testing and scoring*.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distributor.

ABSTRACT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Korean you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ndicators

Jin, Sunghee* · Sung, Eunmo** · Choi, Changwook**

Many researchers have undertaken work to develop competencies related to youth careers due to the increasingly highlighted importance of these particular areas of competence. Howeve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imitations in this previous work i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chiefly the fact that such work has not reflected current youth characteristics and social changes. This is mainly because the previous studies have dealt with “career” as the notion which is focused largely on the idea of “job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dicators for assessing you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career development. To achieve this research aim, the indicators for assessi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e were drawn up from a systemic literature review and they were then validated and modified by the expert review method and finally developed into two surveys targeting youth. 28 youth experts participated in the expert review. The participants comprised 333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first survey and 791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second survey. In terms of results, nine indicators were developed: self-exploration, career and job exploration and career decision ability for assessing career design competency, needs for leisure, leisure control, leisure commitment for assessing leisure use, attitude for differentiation, challenge spirit, and risk-taking for assessing the pioneer spiri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the fundamental guidelines for developing various activities and establishing youth policies related to youth career development.

Key Word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youth competency, career design, leisure use, pioneer spirit

투고일: 2015. 6. 15, 심사일: 2015. 8. 4, 심사완료일: 2015. 8. 10

* Inha Universit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